

특별기고

충신과 간신 판별의 지혜



이 중 희 포천인민평의회장

세계 역사에서 흥하고 망한 나라를 살펴보면 모든 원인은 당시에 어진 신하를 등용했느냐 아니면 간신을 등용했느냐에서 판가름이 났다.

군주가 재능이 있고 유능한 보좌를 받으면 천하에 왕 노릇까지 할 수 있고, 군주에게 재능은 없지만 유능한 보좌를 받으면 그 나라의 백성을 부강하게 할 수 있다. 가장 불행한 경우가 군주에게 능력이 없는데도 주위에서 인재를 구할 줄 모르는 경우인데, 이 경우 나라는 약해지고 결국 예외 없이 망하고 말았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늘 보복해 왔다. 옛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어려운 정국을 안정시킨 큰 인물들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

춘추전국시대 제(齊) 나라 위왕은 초기에 나라를 다스릴 줄 몰라 주책 잡기만 했다. 많은 신하들의 주장을 듣고 있던 대 그날듯하고 옳은 것 같아 누가 충신이고 간신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간신이 판을 치고 간교함이 막혀서 나라꼴은 말이 아니어서 주위의 여러 나라들은 심심하면 제나라를 쳤다. 이러한 때에 학문과 지혜를 겸비한 공은 선비 '추기' 라는 사람을 정승으로 맞이하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추기 정승은 제위왕에게 이른다.

"대왕은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시고 백성을 지도하사 폐왕의 대업을 이루옵소서"

제위왕은 크게 기뻐하고 정승 추기를 신임하고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 정승 추기가 모든 대부들에게 물었다.

"지금 각 고을에 나가있는 모든 유수들 중에서 어진 사람은 누구이며 나쁜 사람은 누구인지요?"

그럴 때마다 많은 대부들은 아담 땅 유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목읍 땅 유수는 못된 자 라고 욕을 했다. 추기 정승은 이 사실을 제위왕에게 보고했다. 제위왕은 즉시 암행어사를 보내어 아담 땅과 목읍 땅을 시찰하고 오게 했다. 얼마 후 암행어사가 돌아와서 제위왕에게 두 고을의 실태를 자세히 보고했다. 제위왕은 즉시 아담 땅 유수와 목읍 땅 유수를 소환했다.

모든 신하를 정전 앞으로 모으고 말한다.

"이제 어진 유수와 못된 유수가 있으니 그들에게 상과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목읍 땅 유수를 먼저 앞으로 불러냈다.

"그대가 목읍 땅 유수로 부임해 간 이후로 날마다 그대를 힐끔는 비난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암행어사를 보내왔다. 그런데 암행어사의 보고에 의하면 목읍 땅은 논과 밭이 잘 개척

되어 있고, 백성들은 수입이 늘어서 생활도 풍족하고, 관청엔 밀린 일도 없다는구나. 그런데 모함을 받은 것은 그대가 서울에 있는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 아첨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는 성실껏 목읍 땅을 다스렸지만 많은 중상모략을 당했소. 이제 그대에게 더 큰 고을을 주겠소"

다음에 제위왕은 아담 땅 유수를 불러냈다.

"그대가 아담 땅 유수로 부임해 간 이후로 날마다 그대를 칭송하는 칭찬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암행어사를 아담 땅으로 보냈다. 그런데 돌아온 암행어사의 보고에 의하면 논과 밭은 거칠고 백성은 굶어서 부황이 나고, 지난날엔 조나라 군사가 그곳 경계까지 ??데도 너는 싸움 생각도 없었다는구나. 그러면서 너는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서울에 있는 고관들에게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많은 재물을 뇌물로 바치는 걸 일삼고 파인의 귀에 좋은 말만 들어기도록 했을 뿐이다. 너 같은 간신은 없을 것이다"

제위왕은 노기등등하여 명령한다.

"속히 뜰에 가마솥을 걸고 물을 끓여라"

그리고 아담 땅 유수와 그를 극구 칭찬하던 자 수십명을 잡아내어 크게 꾸짖는다.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⑦

물의 생태학에 대한 사유



공명수 교수 단국대학교 생명학과

어떤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 마음속에 물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물이 지닌 온갖 모습을 통해 때론 격정적인 공포에, 때론 부드러운 위안에, 때론 영묘한 신비에 빠져든다. 그것은 우리가 펼쳐지는 성(聖)과 속(俗), 창조와 파괴의 모든 상상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물에 얽힌 각자의 과거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어떤 계기 없이도 자리 에 앉으면 물 이야기를 술술 풀어 놓을 수 있다. 우리는 가슴 깊숙한 곳에 흉수 속에 죽은 가족과 이웃의 상처를 묻어 놓고 있기도 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과 저수지의 물이 말라 모래기를 하지 못한 때에 겪었던 아픈 기억도 간직하고 있다. 벤자민 프랭크린(Benjamin Franklin)은 『가난한 리처드의 연감』(Poor Richard's Almanac)에서 "우리는 우물이 말라야 물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은 항상 형이상학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에너지의 근원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자연철학자들은 물을 유기체 형성 과정의 근원으로 인식하여 "변하기 쉬운 혼돈"으로 정의하고, 괴데는 물을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는 "만우의 요소"로 간주하며, 그리고 핀다르네는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요소"라고 칭한다. 볼프강 폰 에센바흐(Wolfram von Eschenbach)는 『파르치발』(Parzival)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결실을 맺도록 해주며, 그 결실의 피조물들을 인간은 생물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시력을 얻은 것도 바로 물 때문이다. 물은 모든 영혼에게 광채를 선물하고 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천 지창조의 성격이 적혀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또한, 무색투명한 액체인 물은 모든 피조물과 산, 구름 등 세상만물의 근원을 비추는 우주의 거울로 통하고 있다. 고대문명에서는 물이 생명의 근원으로, 종자의 근원화되었다. 고대인들은 물의 창조 행위 자체를 신들의 위대한 춤의 카타르시스로 간주하였다. 그 신들이 추는 춤이 모든 종자의 생명을 주재하는 자연의 순환과 같은 계절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대인들은 신들이 자연의 순환주기, 즉 물이 지니고 있는 현상적 속성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표출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세계 곳곳의 지역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제각기 다른 경외하고, 숭배하며, 존경하는 신들을 품고 있다. 자연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은 좋은 신이지만 어떤 신들은 악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신들은 지역의 풍습과 문화에 따라 지마다 다른 정체성으로 상징화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이 지닌 다양한 정체성을 정리해 보면 대체적으로 물의 근원적인 속성인 창조와 파괴의 속성으로 압축된다. 물이 지닌 이상한 상징성 때문에 물을 창조와 파괴, 탄생과 죽음 등의 의미체계와 결부시킬 수 있다.

우선, 물에 내포된 창조의 상징적 의미체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비옥한 삼각주에 거주하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은 물을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심연인 압수에서 나온 원초적인 요소로 숭배한다. 그들은 샘물과 호수와 강물 등 모든 형태의 물을 창조주인 수신(水神)이라는 이름으로 인격화 시켜 경배하고 있다. 물속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은 물의 힘과 연관되어 힘을 인간은 생물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시력을 얻은 것도 바로 물 때문이다. 물은 모든 영혼에게 광채를 선물하고 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천 지창조의 성격이 적혀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랍들은 사람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바다물결의 거품 속에서 조개껍질을 열고 나온 존재로 알고 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물을 끌어내는 자"라는 뜻으로 바구니에 담겨 나일 강을 떠다니다 강에서 목욕하던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물이 내포한 파괴의 상징적 의미체계를 살펴보자. 절루족들은 물속에 괴물이 산다고 믿고서 그 괴물이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수면위에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영혼이 없는 육체가 지탱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고, 그들이 영혼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다를 없다고 여기고 있다. 벵골만의 앤더턴 군도 원주민들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 위에 비친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물을 바라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리스와 인도 사람들은 꿈속에서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죽음을 예시하는 흉몽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물의 정령이 자신의 영혼을 물속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기에 영혼 없이 여생을 살아야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자기불입으로 생명까지도 빼앗아 간 나르시소스 전설도 이와 같은 맥락을 내포하고 있다. "나르시소스는 샘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즉 부드럽게 비치지만 결국 자신에게 괴로움을 안겨 줄 스물로의 상(像)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물속에 뛰어들어 익사되었다. 삶의 환상이나 인생의 열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물을 잘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고 임버릇처럼 말해 왔다. 이 말은 물이 지닌 창조와 파괴의 상징적인 의미체계를 성찰하는 자가 천하의 이치를 통찰하여 이를 잘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우리지역에 얽혀 있는 물의 생태학을 깊이 성찰하고, 이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행정시스템 속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에세이 76

아들아! 지금 생각해 보니 네게 참 미안했구나



이 호 연 명성초등학교 교장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 열정이 들끓기만 하면 서러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와 어머니가 동반 유학을 기쁘고 고국에 홀로 남은 아내를 가리켜 '기러기 아빠'라는 별칭까지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의 성과가 바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로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대한민국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거의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년 전의 일이다. 필자의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던 4월에 학교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아들 편에 전달받았다. 적성검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자연계 계통에 대한 적성을 나타내는 점수가 99점, 100점 등 자연계 계통에 대한 직업 적성의 점수가 인문계 계통의 직업 적성의 점수보다 단연 높았다. 필자도 적성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처음 접해 보았으므로 결과 보고서에 더 신뢰가 갔다. 적성검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자연계, 인문계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연계를 선택하도록 권했는데 아들은 인문

계를 선택하겠다고 했었다. 사실 필자로서는 난감했다. 그래서 지인으로 알고 있는 서울 모 고등학교 교감선생님께 전화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느 계통으로 진로를 결정해야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 분께서도 아들 입장은 인문계를 선택하고 싶다고 해도 적성검사의 결과대로 자연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아들을 설득해서 자연계를 선택했었다.

진로를 결정하고 1년 후의 일이었다. 아들이 3학년이 되던 5월이 되었는데 수학교과에 대하여 개인지도 받고 싶다고 했다.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 개인지도도 받았다고 말할 때까지 얼마나 그 교과에 대하여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을까하는 생각이 드니 더욱 난감했다. 다행스럽게 좋은 개인지도 교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2개월 정도 개인지도 받은 후 아들의 소감을 들으니 이제 수학이 보인다고 했다.

결국 대학교 진학은 교차 지원 형식으로 인문계 사회계열대학교 수시 2차에 합격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들에게 많은 마음고생을 시킨 것 같아 늦었지만 "아들아! 지금 생각해 보니 네게 참 미안했구나."라고 사과한다. 아들의 말대로 인문계를 선택했다더라면 교과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덜 되고 공부에 대한 효율도 더 높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적성검사 결과 보고서도 참고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의사를 심문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뒤늦은 후회를 한다.

진로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특별히 잘' 하고 '특별히 좋아'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하고 '보다 좋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다. 누구나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고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자녀들의 일상생활을 잘 관찰하여 보자 자녀들이 신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이 있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이 있는가? 크게 아니더라도 지나가며 누가 잘한다고 칭찬했던 적이 있는가? 다른 것들보다 쉽게 배우는 것이 있는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은 교과목은 무엇이며, 낮은 교과목은 무엇인가? 주로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싫어하는가? 다른 것보다 더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 하거나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자녀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든지,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은 직업이 있는지, 자녀가 혹시 "모르겠다."하고 대답해도 실망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스스로 자신의 미래직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필자가 교직에 첫 발령을 받아 4학년을 담임했을 때 수업시간에 우연히 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대하여 발표했다. 그때 학생들은 모두 치과의사, 외교관, 대통령, 육군대장, 간호사, 선생님 등을 비교적 이해가 가는 직업들을 답변했는데 맨 뒷좌석에 앉은 몸집이 학급에서 가장 큰 '00'이에게 발문

했더니 의외로 '렛장수' 하겠다고 했다. 순간 답답으로서 진로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눈앞이 캄캄했다. 수업시간이고 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내가 좋으면 즐겁게 갖는 것이 장래의 직업인데 옛 장수할 때 선생님 만나면 옛 즐거니?' 하고 자칭한 적이 있다. 바로 이럴 경우이다. 부모 뜻과는 전혀 다른 직업 특히 사회적 형성 과정의 근원으로 인식하여 "변하기 쉬운 혼돈"으로 정의하고, 괴데는 물을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는 "만우의 요소"로 간주하며, 그리고 핀다르네는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요소"라고 칭한다. 볼프강 폰 에센바흐(Wolfram von Eschenbach)는 『파르치발』(Parzival)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결실을 맺도록 해주며, 그 결실의 피조물들을 인간은 생물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시력을 얻은 것도 바로 물 때문이다. 물은 모든 영혼에게 광채를 선물하고 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천 지창조의 성격이 적혀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 신고기간 운영

- 대상: 모든 미가입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사업장의 신고, 동법 제99조 제2항 제1호-과태료)
- 기간: 2008. 06. 02~2008. 06. 30
- 신고: 사업장의 대표자
- 목적: 근로자의 권익보호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권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최근 법 개정('08.03.28)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의무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안컴퓨터 설운점

대표 심태진

CCTV / 네트워크 구축
컴퓨터 조립 / LCD 수리

전 화 : 031-544-7779
팩 스 : 031-543-7894
휴대폰 : 011-9756-9852

아름다운기업
금호아시아나 금호생명

포천지점 수석팀장 박혜자

신입사원 FC모집

전화 : 031-536-1473, 팩스 : 531-6003
휴대폰 : 011-324-0722
이메일 : ppp3800@hanmail.net